연화산 옥천사 장유불교대학 김해서 개원

부처님 점안 및 불교대학 개원식
"불교도래지 김해서 개원 의미 커"
2년 과정 개원 매주 월요일 강의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사 장유불교대학이 경남 김해에서 개원했다. 장유불교대학(학장 수운)은 3월 30일 김해시 번화로 굿모닝 빌딩 6층 법당에서 연화산 옥천사 장유불교대학 부처님 점안법회 및 불교대학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적멸보궁 지성 스님과 관음사 동명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1부 점안식에 이어 2부 장유불교대학 개원법회가 이어졌다.

초대 학장에 취임한 약수암 수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법을 전해야 하는 것이 출가 수행자로서 당연한 소명이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불교가 많이 쇠퇴해진 것을 느꼈다" 며 "산중의 사찰에 안주하는 것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곳에서 불법을 펼쳐 보이고 싶었다"고 장유불교대학 개원취지를 밝혔다.

수운 스님은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도래지인 김해 장유에서 장유불교대학 개강으로 부정적인 마음에서 밝은 긍정의 마음이 되기 위해 불교대학을 만들었다"며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유불교대학은 3월 30일 김해시 번화로 굿모닝 빌딩 6층 법당에서 연화산 옥천사 장유불교대학 부처님 점안법회 및 불교대학 개원식을 봉행했다.

적멸보궁 지성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장유화상이 이 국토에 처음으로 불교의 씨를 뿌렸고 오늘은 장유불교대학 개원이라는 꽃이 활짝 피는 날"이라며 "지역을 초월해서 이곳 장유에서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삼보에 공경하고 수행정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음사 동명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처님의 유훈을 받들어 정법의 가르침으로 불교대학 학생들이 용기와 희망이 되어 어려운 시기에 큰 등불처럼 삶의 지팡이가 되고 발전하기 바란다"고 개원을 축하했다.

옥천사 마가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그럴 수 있지 하면 행복해 지고, 그럴 수 없지 하면 불행해진다. 학장 수운 스님께서 일평생 부처님 밥 먹고 살았는데 마지막 회향으로 장유에 불교대학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며 "귀 기울이기, 바라보기, 소통하기, 공감하기, 함께하기의 학훈을 가지고 행복으로 가는 장유불교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前 종회 부의장 이암 스님도 축사에서 "포교당 없는 이곳에서 개강함에 감사하며 그것은 불교가 위대하기에 가능하다. 근본교리를 중심으로 명상, 사섭법에 의한 개인 맞춤형 강의를 통해 장유불교대학이 발전하기 바란다"며 힘든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한 수운 스님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당부했다.

윤선자 불자는 입학생 선서를 통해 "버릴 것은 집착이고 배울 것은 지혜이며 실천할 것은 자비임을 명심하여 학칙을 준수하며 수학, 수행,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장유불교대학은 '귀 기울이기, 바라보기, 소통하기, 공감하기, 함께하기' 를 학훈으로 2년 4학기과정으로 이날 개원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이날 법회에는 장유불교대학 학장 수운 스님(약수암), 고성 적멸보궁 지성 스님, 고성 관음사 동명 스님, 천비룡사 일선 스님, 고성 옥천사 마가 스님, 조계종 前 종회 부의장 이암 스님(고성 문수암), 고성 운흥사 월암 스님, 고성 청수암 진각 스님, 고성 보현암 성혜 스님, 고성 약사암 법조 스님, 진주 보광사 현도 스님, 화순 법계사 지묵 스님, 거제 보현사 영담 스님, 강원도 신흥사 덕문 스님, 해인사 백련암 일신 스님 등 스님 30여 명과 하학렬 前 고성군수, 입학생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김해 바라밀선원 개원 10주년 맞이 행사

기념법회 · 승보공양법회 봉행
관음전 낙성, 가사공양 등
총 1000만 원 장학금 전달

김해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했다.

4월 1일 바라밀 선원 2층 대법당에서 열린 개원 10주년 기념 법회는 관음전 낙성식, 육법공양, 스님들에 대한 가사공양, 주지스님 법문,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음성공양, 생전예수재 49재 및 천도재의 순으로 진행됐다.

바라밀선원 보현화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 대표들은 15명의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주지 인해 스님, 부주지 덕암 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스님들에게 우슬착지하고 가사를 이마에 정대한채 스님들께 가사를 공양했다.

바라밀선원 주지 인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처음에 아무 연유도 없는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천일기도를 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난 10년간을 회고하고 "이제 큰 산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부터는 바라밀선원의 재정도 공개하고 신도님들이 모든 것을 맡아 하고 스님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 바라밀선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이어 "자타불이력이라고 해서 내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력, 서원이 늘 있어야 한다"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한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바라밀선원 장학회 장학증서 및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인해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금산 스님을 비롯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석사, 박사과정 학인 스님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바라밀선원에서는 지난 10년간 매년 10여 명의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이상덕 동국대 대외협력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학인스님들께 장학금을 전달해 오신 것은 스님과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라며 "종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보현화 신도회장은 "바라밀선원이 오래도록 유지되면서 바라밀선원에 오면 누구라도 행복한 절이 되길 바란다"며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을 이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서 바라밀선원이 최고의 명품 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라밀선원 합창단의 음성공양에 이어 생전예수재 49재 및 천도재를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녹색환경연합 상임대표 진성스님 추대



전북녹색연합은 3월 31일 전주에너지센터 3층에서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사진>을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환경운동 결과 보고, 감사결과 보고, 결산 보고, 운동평가 보고, 2023년도 운동계획 승인, 예산계획 승인, 임원 선출 및 감사 선임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원선출에서는 상임 공동대표로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태고종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 의장, 전북교구 종무원장)이 추대되어 23년도부터 2년간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전북녹색환경연합을 이끌어가게 됐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라북도뿐만 아닌 전 세계의 환경 지킴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겠다"며 "녹색환경 연합회 회원의 지도 아래 전북의 환경을 살리고 녹색연합 운영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서 공개 촉구 공동행동과 수라갯벌 연안습지 보존, 생태조사, 저어새 번식지 현장 조사, 수라갯벌 문화재 발견 대응에 신속대처하고 진안 용담댐 상수원 오염 조사를 통해 금강과 섬진강을 살리는 데 역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주사, 강가라마야 사원 친선 협약

스리랑카 강가라마야 사원서



창원 불모산 성주사(주지 법안)가 3월 23일 스리랑카 강가라마야 사원에서 친선 협약식을 개최했다.

친선 협약을 통해 성주사와 강가라마야 사원은 스리랑카 자립지원센터 건립 및 주변 시설 조성을 위해 함께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한 성주사 및 강가라마야 사원 불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식은 사찰 소개 및 인사말,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가라마야 사원은 스리랑카 내 불치사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큰 사찰 중 하나이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강가라마야 사원은 불교 사찰이며 또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사찰"이라며 "양 사찰의 친선 협약으로 불교문화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자"고 제안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창군 종합 · 노인복지관 짜장면 나눔



고창군 종합 · 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은 고창밀알회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고창밀알회(회장 유문호)는 4월 3일 고창군 종합 ·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창밀알회는 고창군 종합 · 노인복지관과 협업을 통해 고창군 지역 지역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복지관 이용 어르신 300여 명에게 짜장면을 준비해 함께 식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고창밀알회 유문호 회장은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짜장면을 드시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종합 · 노인복지관 관장 대원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고창밀알회 회장 및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개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